

우리나라 觀光開發과 自然保全에 關한 研究

淸州大學 地理學科 講師 申 重 盛

序 論

우리나라는 옛부터 “錦繡江山”이라고 불리워왔다. 이것이 自讚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찾아 오는 外國人마다 거의가 異口同聲으로, 우리 韓國의 하늘이 世界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事實이 그렇고, 또 높고 맑은 하늘 밑에서는 모든 景觀이 아름다움을 倍加하게 됨은 勿論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中國大陸의 風景은 너무나도 荒涼하고, 또 바다 건너의 섬나라 日本의 景致는 너무나도 오밀조밀하여 답답한 感이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山水는 悠悠하고, 어디까지나 平和的인 느낌을 준다. 이 平和的인 느낌이야말로, 觀光地로서의 첫째 條件에 該當되는 것이다.

누구도 알 수 있듯이, “觀光”은 “平和”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平和”가 없는 곳에 “觀光”은 成立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不幸이도 北傀의 武力赤化統一野慾에 依한 6.25 動亂을 겪었는데, 自由友邦 16個國의 參戰은 이 땅의 自由를 守護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一躍 世界 속의 韓國으로 浮上시키는 轉禍爲福을 가져왔다. 이것이 또 우리나라를 外國人이 찾는 觀光地로 만드는데 적지 않은 要因이 된 것은 板門店을 찾는 外國觀光客이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西洋의 文化·文明을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받아들인 것을 자랑하는 日本이 輸出 100億弗을 達成한 것은 바로 10年前의 일이라고 한다. 이제와서 우리는 그들보다 經濟輸出

에 있어서 10년이 뒤졌지만, 跳躍段階에 올라선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은 앞으로 더욱 高度로 成長할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觀光은 또, 經濟成長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왜냐하면 高度의 經濟成長 없이는 觀光事業에 附隨되는 交通, 宿泊施設 및 觀光開發 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 觀光붐이 일어난 것도 經濟成長이 이룩된 70年代에 들어서서 부터이다.

그런데 高度로 成長한 產業構造는 自然開發과 各種產業公害로 因한 環境破損과 汚染을 가져옴으로 近代產業의 꽃이라고 할 觀光事業은 처음부터 開發과 保全이라는 二律背反的인 命題에 부딪치게 된다.

여기에서 筆者는 觀光開發과 自然保全이라는 一見 矛盾되는 問題에 있어서 서로가 克服하고 調和시킬 수 있는 限界點을, 가장 相衝되는 點이 많아 보이는 洞窟에 焦點을 맞추어 찾아 보려고 한다.

觀光의 概念

● 우리나라 從來의 觀光概念

우리나라의 古制度에서는 科學 보러가는 것을 “觀光”이라고 했다고 한다! 옛 선비들이 科學應試라는 實利追求를 “觀光”이라는 말로 美化 乃至는 戲化시킨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재미있다.

1) 李熙昇 編 「국어대사전」 p.273 「관광」

하기는 觀光이란 말은 本來가 中國 周時代의 易經 속에 있는 「觀國之光」에서 왔다는 것이다.²⁾ 그 당시의 人들은 자기 나라의 힘을 誇示하기 위해서든가, 또는 他國의 制度나 風俗을 視察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데 參考로 삼기 위해, 서로간의 特別한 往來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觀光”이란 말의 起源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目的이 國力の 誇示, 또는 他國文物의 視察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豪華스러운 人者들에 의하여 행하여졌었던 만큼, 모름지기 遊覽의 뜻이 殆半은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東洋에는 古來로 儒敎의인 道德觀念이 強하여, 人間의 本能이긴 하나, 일은 아니하고 놀러다니는 行爲는 退嬰的이고 墮落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人間의 本能이 露出되는 것을 꺼린 나머지, 遊覽에 있어서 副次的으로 얻어지는 視察을 앞세워 camouflage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傾向은 아직도 남아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權力層의 外遊에 의해서 視察이라는 名目이 붙여지는 모양이다. 이제 여기서 李熙昇 編 「국어대사전」을 볼 것 같으면 “觀光”이란,

- ① 다른 나라의 文物制度를 視察함.
- ②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風光, 風俗을 遊覽함.

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觀光에 있어서 視察과 遊覽은 表裏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現代的인 意味에서의 觀光客이 나타난 것은 1920年 8月의 일이다.

그것은 當時의 美國上·下兩院議員과 그들의 家族들로 構成된 48名의 一行이 필리핀 香港, 上海, 北京을 訪問한 끝에 서울과 日本을 거쳐 本國으로 돌아 가는 길에서였다. 그때 우리民族은 三·一獨立運動의 쓰라린 經驗을 겪은 이듬해라, 이들 美國議員들에게 朝鮮의 獨立을 呼訴하려고, 日帝機關에 대해서는 全國的인 破壞行動을 敢行했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大대의인 歡迎行事를 準備했었다. 그러나 日帝의 彈壓으로 헐스맨議員만을 가까스로 만났을 뿐이지만, 當時의 新聞에서도 어떤 곳

에서는 美議員들의 “極東視察團”이라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東洋觀光團一行”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서울에 到着한 이튿날인 25日, 國際親睦會와 日總督의 招待로 昌德宮, 景福宮, 商品陳列館, 秘苑, 南山公園, 漢陽公園과 總督府, 病院, 學校 등을 돌아 본 것을 보면,³⁾ 視察보다도 遊覽의 色彩가 짙은 것이다.

그후 日帝植民地下에서 解放될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한 “萬國遊覽”이며 “世界一周”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一部 極少數의 特殊富裕層에 極限된 것이었으며, 또 多分히 現實逃避의인 敗北意識에 起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亡國下에서의 世界遊覽같은 것은 罪惡視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解放後, 나라가 獨立되면서 自由主義思想이 널리 싹트기 시작했고, 6.25後의 經濟建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封建社會에서 罪惡視되었던 “일은 많고 놀고 있다”는 狀態, 즉 “休息”이 人間의 基本權利中的의 하나로 認識되기 시작했다. 더우기, 經濟成長이 繼續되면서부터 休息이야말로 人間勞動力의 再生産에 있어서의 重要한 하나의 基本的인 投資가 되며, 人間의 完全한 休息 없이는 經濟生産能率이 오히려 低下된다는 것이 常識化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休息에 대한 正確한 認識은, 우리나라의 封建社會에 있어서는 비록 社會化되지는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農民들이나 勞動者들 사이에서 있어 왔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서 널리, 그리고 자주 불리워지고 있는 民謠調의 노래 등에 “노새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라는 歌辭가 흔히 들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것은 比較的 虛飾이나 体面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生活感情을 率直하게 吐露할 수 있는 그들의 노래로서, 비록 表現은 그들 나름대로의 芸術的 昇華가 이루어졌겠지만, 그것은 休息에 대한 熱熱한 渴望을 나타낸 것이다. 그들의 고된 勞動條件과 貧困한 生活環境 속

2) 塩田正志 著 「“觀光”概念の再檢討」

3) 韓民族運動研究所 刊行 「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
p. 116

에 있는 休息, 즉 “놀다”는 狀態가 唯一한 勞動 生産에의 最大限의 投資였기 때문이다.

● 觀光의 現代的 概念

다시 말해서, 精神的 勞動이건 肉体的 勞動이건, 勞動에는 休息이 絶体的으로 必要하다. 休息에도 역시 肉体的休息과 精神的休息이 있겠으나, 지금처럼 高度로 複雜多岐化한 社会生活을 營爲하는 現代人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区分하기조차 힘들다. 肉体的休息을 取했다하여 精神的인 苦悶이며 疲勞가 恢復된다는 법은 없다. 勿論 精神的인 休息을 取했다하여 肉体的疲勞가 가실 리 萬無다. 게다가 各種産業의 技術革新, 機械化, 能率化로 因하여 勞動時間의 短縮으로 생기는 余暇는 오히려 잘못 消費함으로써, 肉体的으로나 精神的으로 더 많은 負擔과 苦悶을 안겨주는 結果를 招來하기가 쉽다.

여기에서 레크리에이션, 즉 作業이나 研究에서 오는 疲勞를, 즐거움이나 기쁨에 의해서 풀어주므로써 精神的, 肉体的으로 새로운 힘을 북돋는 일이 擡頭된 것이다.

勿論, 레크리에이션에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가장 効果인 것은 精神的, 肉体的 疲勞를 주는 現場에서 脫出하는 것이다. 일찌기 佛敎에서는 世俗的인 煩惱에서 벗어나기 위해 山中으로 가서 修道하기 시작했고, 또 醫師들은 患者들에게 轉地療養을 勸告하는 境遇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한場所에서 다른 곳으로 크게 移動하는 것을 旅行이라고 한다.

나그네 女字인 「旅」의 古字는 「舟」라고 하는데, 그것은 「方」字와 「人」字를 합쳐서 만든 字로서 어떤 方向으로 사람들이 姿勢를 取하고 있는 것을 象徴한 것이다. 그러므로 「旅行」이란, 文字 그대로 사람들이 어떤 方向으로 行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問題의 現場에서 떠나면 一旦 解放된 氣分에서 心身이 豁가분해지므로, 저절로 氣分轉換이 된다. 게다가 人間에게는 本來 知의 世界에 대한 憧憬과 好奇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環境은 그것을 充足시켜 주므로, 旅行 그 自体만으로도 滿足할 수가 있다.

旅行이란 길을 떠나 어디론가 가는 過程, 즉

移動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갖가지 目的이 따르게 마련이다.

勿論, 아주 目的없이 旅行만을 즐기는 境遇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地方으로의 行樂을 目的으로 한 旅行은 “觀光”(Tourism)이 되는 것이다.

“觀光”을 現代的으로 定義하자면

- ① 사람이 日常生活에서 벗어나,
- ② 다시 돌아 올 予定으로 移動하면서,
- ③ 氣分轉換을 즐기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⁴⁾

觀光의 概念이 이렇게 달라지면, 從前까지 密着되어 있던 「視察」에서 벗어나, 動機와 目的이 多樣해진다. 오늘날 一般的으로 흔히 행하여지고 있는 觀光을 그 動機面에서 分析해보면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⁵⁾

- (1) 心理的動機—愛郷心, 信仰心, 交遊心 등에 起因하는 觀光欲求
- (2) 精神的動機—見聞, 知識, 歡樂 등에 대한 欲求
- (3) 身體的動機—治療, 休養, 運動 등에 대한 欲求
- (4) 經濟的動機—商用이나 物品購買 등으로 일어나는 欲求,

그리고, 觀光을 다시 그 目的과 意義面에 다음과 같이 나눠 보는 見地도 있다.⁶⁾

- (1) 遊覽的觀光—自然景觀鑑賞, 레저 施設利用, 名所巡回, 慰安旅行, 新婚旅行 等
- (2) 教養觀光—修學 및 研究旅行, 自然觀察, 史蹟巡訪, 産業施設·郷土景觀의 見學 등
- (3) 스포츠觀光—海水浴, 하이킹, 登山, 冬期運動 등
- (4) 休養的觀光—溫泉療養 및 休養, 避暑, 避寒 등

그러므로, 누구나 觀光欲求(動機)를 가지고 觀光目的을 充足시키려는 行動은 觀光行爲가 되는 것이다.

4) 大林正二 著 「觀光事業の話」 p.16

5) 入沢文明·秦正宜 著 「觀光事業」 p.84

6) 淺香幸雄·山村順次 共編 「觀光地理学」 p.4

우리나라 觀光對象의 現況

觀光資源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觀光 欲求의 對象이 되고, 또 觀光行動의 目標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크게 말하면, 한나라의 모든 것이 觀光資源이다. 예를 들어, 우리 韓國人 自体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草家지붕이나, 迷信이라고 업수히 여기는 巫堂굿, 또는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는 담뱃대나 農家에서 쓰는 지게조차도, 낯선 外國人들에게는 大端히 興味 있고, 魅力的인 觀光對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觀光資源은, 그 種類가 多樣하고, 範圍도 廣範圍하다.

우리나라는 비록 國土는 좁지만 (南韓만의 面積은 98,477km³), 三面이 바다로 둘러 쌓여 海岸과 沿岸島嶼의 風光이 아름답고, 內陸地方은 五千年의 기나긴 歷史를 통해 간직된 풍부한 文化財와 史蹟이 坊坊谷谷에 散在해 있는데다가, 氣候마저 溫和한 가운데 四季節의 區別이 뚜렷하다. 오랜 傳統을 이어온 住民들의 生活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固有의 風習을 낳았는데, 그것은 自然景觀과 더불어 平和의인 것이어서, 觀光으로서는 比할 수 없이 좋은 對象이라고 할 수 있다.

觀光對象이 多種多樣하고 廣範圍하게 存在한다고 하나, 그것을 分類한다면 다음의 5가

리로 나누어진다.”

- 1) 旅行하는 그 自体가 觀光對象이 된다(汽車, 自動車, 船舶, 馬車, 人力車, 이밖의 모든 移動媒体).
- (2) 自然的인 것.
 - ④ 無形의 것으로 氣候, 風土 등.
 - ⑤ 有形의 것으로 地形, 天象, 生物 등.
- (3) 人文的인 것.
 - ④ 生活, 民俗文化的인 行事, 人間文化財를 包含한 藝能 등의 無形의 것.
 - ⑤ 史蹟, 寺刹, 宮闕, 文化的諸施設物 등의 有形의 것.
- (4) 行動的인 觀光對象이 되는 스포츠, 登山, 낚시, 狩獵 등.
- (5) 有形, 無形의 各種 娯樂비수도 觀光對象이 된다.

그런데, 筆者가 여기서 問題로 삼으려는 것은 (3)의 自然的인 觀光資源이다. 그 中에서도 特히 有形的인 觀光資源인데, 그것을 좀 더 仔細히 說明하면 —— 山岳, 丘陵, 高原, 平原, 湖沼, 河川, 溪谷, 瀑布, 海岸, 溫泉, 洞窟, 動植物· 등을 말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有形的인 自然觀光 資源中에서 觀光對象이 될 主되는 것을 例舉하면 다음과 같다.

7) 大林正二 著「觀光事業의話」p.19

우리나라의 地域別 指定觀光地

市道別	觀光地名	所在地	總面積 (km ²)	主要觀光資源
京畿	淸平湖畔	加平郡 加平面	369.4	땀과湖畔 가을의 丹楓,
	安養遊園地	安養市 石水洞	6.45	水泳場, 冠岳山, 연주암 等
	松島遊園地	仁川市 玉連洞	0.80	觀音寺, 海水浴場, 보오트場 等
	龍門山	楊平郡 龍門面	132.98	증원瀑布, 銀杏나무, 龍門寺, 봉황성 等
釜山	太宗台公園	影島區 동삼동	1.78	海水浴場, 望夫石 等
	東萊金剛公園	東萊區 溫泉洞	2,108	흔들바위, 溫泉, 動植物園 等
江原	江陵	江陵市 一門	75.06	客舍門, 鏡浦台, 금란정
	春川湖畔	春川市	44.9	忠烈塔, 湖水, 땀, 상원사 等
	雪岳山	東草市 인제郡	163.70	神興寺, 飛仙台, 飛龍瀑布 等
	高氏洞窟	寧越郡 河東面	32.57	高氏洞窟, 莊陵

市道別	觀光地名	所在地	總面積 (km ²)	主要觀光資源
忠北	俗離山	報恩郡	119.5	法住寺, 正二品松 玄石台 等
	水安堡溫泉	中原郡 上毛面	83.8	溫泉, 미륵佛, 五層石塔
	丹陽八景	丹陽郡 一門	376.8	石門, 금수암, 강선대, 화선암, 도담삼봉 等
忠南	大川海水浴場	保寧郡	0.84	맑은 湖水, 落照 等
	扶餘	扶餘郡 扶餘邑	8.56	石佛座像, 扶蘇山城, 三忠祠, 落花岩, 고란사, 白馬江等
	溫陽	牙山郡 溫陽邑	28.83	溫泉, 顯忠祠, 忠武公遺物, 사슴牧場 等
	公州公山城	公州郡 公州邑	0.81	公山城址, 雙樹亭, 鎮南樓 等
全北	內藏山	井邑郡 內藏面	0.79	內藏寺, 神仙峰, 文筆峰, 丹楓 等
	邊山半島	扶安邑 邊山	125.47	海水浴場, 赤壁, 채석강
	茂朱九千洞	茂朱郡 雪川面	105.45	鶴單台, 일사대, 덕유산 等
全南	梧桐島	麗水市 桐水晶洞	0.31	鎮南館, 忠武公銅像, 동백꽃 等
	白羊寺地域	長城郡 北下面	0.02	大雄殿, 石塔, 藥水岩 等
	無等山	光州市 金谷洞	0.16	元曉寺, 진달대, 친운사
	曹溪山	昇州郡 松光面	3.3	松光寺, 仙岩寺, 曹溪山
	大興寺	海南郡 삼남면	0.55	頭輪峰, 大興寺, 三層塔
慶北	周王山	青松郡	11.00	왕벗나무, 丹楓, 苛岩 等
	直指寺	金陵郡	81.00	直指寺, 비로봉, 백연암
慶南	海印寺地域	陝川郡 伽倻面	0.86	海印寺, 伽倻山
濟州	龍淵	濟州市 용담동	0.06	龍頭岩, 龍淵
	萬丈窟	北濟州郡 旧佐面	23.03	万丈窟, 金寧窟 等
	正房瀑布	南濟州郡 西歸邑	23.27	神仙바위, 외골피, 우두암
	安德溪谷	南濟州郡 安德面	28.81	산방굴사, 화순해수욕장 等
	天帝淵	南濟州 中文面	16.45	天帝淵, 中文海水浴場

資料：交通部「觀光業務現況」74. 2

國立公園

公園名	所在地	總面積 (km ²)	所有者別			指定 年月日
			國公有	寺利	私有	
① 智異山	全南·北 慶南	439	301	64	74	67.12.19
② 慶州	慶 北	132	40	6	86	68.12.31
③ 鷄龍山	忠 南	61	33	6	22	"
④ 閑麗水道	慶南·全州	507	383	1	123	"
⑤ 俗離山	忠北·慶北	105	24	27	6	70. 3. 24
⑥ 漢拏山	濟 州	133	129	—	4	"
⑦ 雪岳山	江 原	344	313	25	6	"
⑧ 內藏山	全南·全北	76	20	21	35	71.11.17
⑨ 伽倻山	慶南·慶北	57	14	33	10	72.10.13
⑩ 北漢山	서울·京畿	35	14	1	20	指定豫定
合計		1,889	1,271	184	434	1974年 現在

資料：交通部「觀光現況」73. 8

道立公園

公 園 名	所 在 地	總 面 積 (km ²)	指 定 年 月 日
① 南漢山城	京畿	36.45	71. 2. 23
② 稚岳山	江原	174.62	73. 3. 3
③ 德裕山	忠南	21.04	"
④ 七甲山	"	31.97	"
⑤ 辺山半島	全北	35.14	71. 11. 17
⑥ 茂朱九千洞	"	105.15	"
⑦ 母岳山	"	42.22	"
⑧ 無等山	全南	30.23	72. 5. 10
⑨ 月出山	"	30.81	73. 3. 3
⑩ 金烏山	慶北	30.87	70. 6. 1

資料：交通部「觀光現況」73. 8

主要山岳

山 名	標高 (m)	山 名	標高 (m)	山 名	標高 (m)
북한산	836	화양동, 소금강	903	취루산	1,058
도봉산	740	서대산	656	만어산	670
수락산	638	장릉산	828	천대산	632
불암산	507	계통산	678	토곡산	885
관악산	627	충남가야산	932	무쌍산	720
수리계산	473	백화산맥포성	1,093	신어산	630
청계산	618	월악산	1,106	무학산	762
능소리봉	537	주흘산	1,106	천성산	811
천마산	812	조령산	1,017	대운산	742
철쭉산	710	백회화양산	1,063	금해산	801
운정길봉	879	소백산	998	대둔산	681
에밀봉	610	청량산	1,439	모악산	877
백운문악	683	백암산	870	운장산	667
운문악	589	백암왕공	1,003	구봉이산	1,126
화야산	1,157	가비산	720	마봉이산	919
소요산	936	비슬산	1,192	주구천동	667
명악지니산	755	최점산	901	덕유산	1,594
화명지니산	532	최금오산	1,084	저깃대	1,030
삼악산	. 922	황학야산	915	민석기봉	1,015
구곡포산	1,468	매화도산	1,111	내장암	1,241
치악산	1,250	수함연산	1,430	백담산	1,239
감악산	486	내울통도성인봉	954	무등산	722
백악산	654	화왕산	1,316	월출산	1,187
오대산	1,288	화문산	745	두리산	809
청학동, 소금강	954	고천산	929	지리산	703
백태산	1,350	가운천	984	백운산	1,915
청속리	1,708	화문산	756	백제	1,218
	1,563	고천산	1,013	홍한	887
	1,561	가운천	1,033		
	1,551	신	1,240		
	1,353		1,200		
	1,403		1,189		
	1,507		1,209		

温 泉 場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동래온천	釜山市東萊區	유성온천	忠南大德郡	백암온천	慶北蔚珍郡
해운대온천	" "	덕산온천	忠南禮山郡	덕구온천	" "
척산온천	江原道東草市	온양온천	忠南牙山郡	수안보온천	忠北中原郡
오가온천	江原道襄陽郡	도고온천	" "		
이천온천	京畿道利川郡	마금산온천	慶南昌原郡		

資料：交通部「觀光現況」73. 8

主要 海水浴場

지 역	해수욕장	소재지	지 역	해수욕장	소재지	지 역	해수욕장	소재지
釜山市	해운대	釜山市	江原道	울왕리	富川郡	羅南道	울포	寶城郡
	송도	釜山市		서포리	富川郡		송호리	海南郡
	광안리	釜山市		화진포	高城郡		망덕리	光陽郡
慶尚南道	다대포	釜山市	忠清南道	낙산	襄陽郡	慶尚北道	수문포	長興郡
	송정리	釜山市		경포대	江陵市		대반동	木浦市
	가포	馬山市		안진	三陟郡		들머리	務安郡
	충무공실	忠武市		북평	三陟郡		포항	浦項市
	행암	鎭海市		후진	三陟郡		동촌	迎日郡
남일대	三千浦邑	방	三陟郡	영해	盈德郡			
京畿道	일일산	蔚山郡	全羅北道	대천	保寧郡	濟州道	양	濟州市
	진하	東萊郡		창	保寧郡		덕	北濟州市
	조라주	巨濟郡		리포	瑞山郡		호	濟州市
京畿道	송도	仁川市	全	비인	唐津郡		중	南濟州州
	작약도	仁川市		난지	扶安郡		세	北濟州州
	팔미도	富川郡		산유도	沃溝郡		화	南濟州州
		富川郡		성리	麗水市		림	南濟州州
				마리	麗水市		순	南濟州州
					영광		정	南濟州州

資料：交通部「觀光現況」73. 8

우리나라 特産物

京畿 ：葡萄(安養) 養蚕(始興) 조기(延坪島) 새우(德積島)	全南 ：棉花, 배(羅州) 冬柏, 굴, 굴비(靈光), 竹製品(潭陽) 수박(無等山) 綠菜(羅州, 寶城) 珍島개(珍島) 韓紙(長城)
江源 ：감자, 옥수수, 호프(平昌) 굴(麟蹄) 松脂(洪川) 蚕莓(洪川, 平昌), 亞麻(平昌) 양송이(束草, 原州) 아스파라거스(高城)	慶北 ：사과(大邱) 重石(達城) 人蔘(豐基) 莞草, 피마자, 薄荷, 통조림, 양송이, 수세미, 落花生(洛東江流域) 오징어(울릉도)
忠北 ：담배(中原, 陰城) 胡桃, 葛布壁紙, 人造眞珠(清原), 人蔘, 감, 양송이	慶南 ：大麻, 高等疏菜(金海) 雀舌茶, 양송이(金海, 梁山) 멸치(南海, 馬山) 단감(進永)
忠南 ：人蔘(錦山, 扶餘) 모시(韓山) 해바라기, 오리, 苧麻亞麻(論山, 扶餘)	濟州 ：除虫菊(北濟州) 굴, 新西蘭, 油菜, 말, 牛豚, 표고, 호프(各地)
全北 ：韓紙(全州), 부채(全州), 竹細工品(任實) 木器(南原) 감(高山) 苧麻布(各地)	

우리나라의 10大觀光圈

觀光圈	觀光地	觀光開發의 基本方向	主要觀光資源
① 首都	서울 北漢山城 南漢南城 仁川 清平 板門店	(1) 隣接觀光地를 開發하므로써 滞在期間을 延長 (2) 古宮, 博物館, 코리아하우스 등의 夜間公開로 夜間觀光을 開發	古宮 博物館 板門店
② 釜山圈	海雲台 東萊 太魚寺 梵魚寺 通度寺 海印寺	(1) 海雲台地域을 國際的인 海水浴 休養地로 開發 (2) 綜合觀光센터 等 施設을 具備하여 觀光基地로서의 役割	海水浴場 溫泉 UN軍基地 寺刹 八萬大藏經
(3) 慶州圈	慶州	(1) 國際的 觀光都市로 開發 (2) 甘浦地區 海水浴場 開發로 滞在期間 延長 (3) 蔚山地區와의 連結로 產業觀光 開發	寺刹 王陵 石窟庵 文化史蹟
④ 濟州圈	한라산 龍淵 萬丈窟 正房浦 天帝淵	(1) 濟州島의 固有化한 生活과 風習保全 (2) 狩獵場, 海水浴場 및 바다낚시터, 施設開發 (3) 國際休暇센터로 開發	自然景觀 海女 狩獵 낚시
⑤ 扶餘圈	扶餘 公州 鷄龍山 儒城	(1) 扶餘, 公州를 百濟文化觀光센터로 開發 (2) 鷄龍山의 自然景觀保護 (3) 儒城地區를 綜合娛樂 休養센터로 開發	百濟文化史蹟 溫泉 自然景觀
⑥ 閑麗水道圈	海金剛 忠武 三千浦 露梁 梧桐島	(1) 6個觀光地를 連結하는 南海 第一의 海上遊覽地로 開發 (2) 바다낚시에 必要한 施設開發	李忠武公戰蹟 海上自然景觀
⑦ 俗離茂朱圈	俗離山 法住寺 茂朱 九千洞	(1) 寺刹, 文化財保護 및 復元 (2) 環境美化 (3) 登山客을 위한 安全保護施設	寺刹 自然景觀 太石佛
⑧ 雪岳山圈	雪岳山 江陵 大關嶺	(1) 바다와 山이 一致한 自然景觀을 背景으로 國際休暇센터로 開發 (2) 雪岳山과 大關嶺을 스키場으로 開發	自然景觀 瀑布 스키場 海水浴場 寺刹
⑨ 智異山圈	求禮 華嚴寺 南原 曹溪寺 松廣寺	(1) 環境保護策樹立 (2) 登山客을 위한 安全保護施設	寺刹 自然景觀
⑩ 內藏山圈	內藏山 白羊寺 無等山	(1) 名山大刹의 自然文化資源의 保護 (2) 環境淨化	寺刹 丹楓 自然景觀



數萬年乃至數十年에 걸쳐生成된鍾乳石들

洞窟觀光의 意義

위에서 例擧한 바와 같은 많은 觀光對象中에서도 特히 洞窟은, 그 어느 것보다도 神秘스러운 곳이다. 洞窟內部는 完全한 暗黑의 世界이고, 거기에는 數萬年乃至는 數十萬年에 이르는 二次生成物의 存在한다. 內部의 形態에 따라서는 스틸이 곁들여진 스포츠일수도 있는 洞窟觀光은 그속에 展開되는 自然景觀의 神秘로움으로 인해, 사람의 好奇心을 充分히 滿足시켜 줄 수가 있다.

觀光動機의 要因中의 하나에, 사람은 日常生活에서 벗어나 보고 싶어하는 心理的인 要因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데, 洞窟 속의 世界는 完全히 外部와 斷切된 世界임으로, 그러한 欲求를 充足시켜 주기에는 安성맞춤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洞窟은 山地나 溪谷 등, 아주 외진 곳에 位置하고 있는 關係로 都市에서 交通이 不便하고, 또 往來에 많은 時間이 所要된다. 뿐만 아니라 洞窟이 가지는 閉鎖性 때문에, 從前까지는 一部 洞窟愛好家나 洞窟 研究家들만이 찾는 곳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갑작스러운 觀光붐이 일어나면서 徐徐히나마 洞窟은 이제 그 眞價

를 發揮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 理由로 우리나라의 觀光客은, 限定된 既存의 이름난 自然的 觀光對象만으로는 멀지 않아 싫증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有形의 自然的 觀光對象은 種類別로 몇 군데만을 除外하고는 거의가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다. 國土의 四極이 緯度上으로나 經度上으로나 크게 벌어져 있지 않다는 關係도 있겠지만, 山은 山끼리, 江은 江끼리 別로 큰 차이가 없다. 東海岸과 西海岸에 差異가 있고, 濟州道地方의 特産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밖의 有形이 自然的 觀光對象은 어디를 가나 어슷비슷하다. 게다가 그 數도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觀光客이 한 두번만 가 보고나면 別로 더 가 보고 싶은 곳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事由는 洞窟의 境遇에도 適用될지 모른다. 洞窟이 觀光對象으로 開發된 곳은 江原道の 高氏窟, 慶尙北道の 聖留窟, 濟州島의 蛇窟 등을 비롯하여 全國에 겨우 10餘 個所 밖에 안되고, 그것들조차도 아직은 觀光客을 收容할 諸般施設을 完全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서, 洞窟은 아직 크게는 觀光의 脚光을 못받고 있다. 따라서 洞窟이 다른

既存의 自然的 觀光對象들보다 덜 싫증을 가져 올지, 혹은 더 많은 싫증을 줄지는 未知數이다.

如何든, 觀光客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既存 自然的 觀光對象에서 食傷한 觀光客이 洞窟을 찾게 될 것은 當然하고도 不可避한 일이다.

觀光環境開發과 自然保全

「한나라의 모든 것이 觀光資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觀光資源의 大部分은, “있는 그대로”만을 가지고 쉽게 觀光對象이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觀光資源과 觀光對象은 嚴密히 다르다. 特別히 有形의 自然的인 觀光資源과 觀光對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例를 들어 아무리 훌륭한 瀑布가 山中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곳에 갈 수가 없다면, 觀光資源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觀光對象으로는 못되는 것이다. 最少限 그 瀑布에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開拓해야만이 觀光對象이 되는 것이다. 또 위의 境遇와는 달리, 아무리 觀光的으로는 전혀 價値가 없는 곳이라도, 그 地域과 社會生活과의 聯結性을 맺고, 많은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觀光地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開發이되면, 그곳은 훌륭한 觀光地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므로 觀光資源의 開發, 正確히 말해서 觀光環境의 開發은 “觀光”에 있어서 必須不可缺의 것이 된다.

따라서 觀光環境의 開發에는 아이로니컬하게도 環境의 變造, 破壞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觀光環境의 開發이란, 最少限 交通 및 觀光客收容의 諸般施設의 設置를 말한다. 이에 적지 않은 費用이 든다. 觀光事業은 이러한 施設과 運營에 投資되는 費用보다도 많은 觀光收入이 있어야만이 成立된다.

그런데, 觀光收入이 投資額 보다도 많은 境遇에도 事業의 欲心은 大体로 限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施設을 擴張하려고 계속 周圍의 自然環境을 破壞하게 된다.

이 研究의 焦點인 洞窟의 境遇를 例로 든다.

가령 洞窟入口까지의 交通路가 開發되고, 簡單한 休憩施設이 設置되어 觀光客이 찾아 들게 되어 觀光收入이 黑字를 記錄한다고 하자. 그러나 事業으로서서는 더 많은 收入을 올려야 하므로 더 많은 觀光客을 誘致하기 爲해서는, 交通路의 擴張, 駐車場의 設置, 觀光客 收容 施設의 擴大가 必要하므로 洞窟周圍一帶는 마치 市街地의 一角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洞窟은, 그 自体가 構成하는 原始的인 風貌로서 더욱 觀光의 價値가 높아지고 維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二律背反의인 結果를 가져 오지 않기 위해서는 審美的인 眼識과 事業的인 計算이 바란스를 維持해야만이 解決될 것이다.

結 論

多幸히도 政府에서는 目下 大대의인 自然保護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當然한 일이다.

다시 例를 洞窟의 境遇를 든다면, 洞窟 속의 二次生成物인 石筍이나 鍾乳石 등은, 적어도 數萬年の 歲月을 두고 生長된 自然物이다. 이것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破壞된다면, 그 損失은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다. 또 사람의 無知, 또는 不注意로 因하여 洞窟 속에 있는 稀貴한 生物이 한가지라도 滅種되는 일이 있다면, 人間의 知識을 擴大深化시킬 學術研究에 決定的인 打擊을 안주리라는 保障이없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法的, 制度的인 保護·管理策과 아울러 大대의인 民衆啓蒙事業이 앞서야 할 것이다.

無知나 不注意로 因한 自然破壞는, 누구보다도 識者나 爲政者의 잘못이라는 認識 아래, 可能한 모든 對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洞窟을 爲해서는 洞窟保護管理法이 따로 制定되어야 하고, 洞窟探訪客에 대한 事前 啓蒙事業을 徹底히 履行함과 同時에, 洞窟에 대한 學者나 研究家들의 꾸준하고도 效果的인 研究事業 등이 併行됨으로서만이 洞窟의 自然保全이 이루어질 것이다.